

19일 Market Index			
코스피	7271.66	코스닥	1084.36
	(-244.38)		(-26.73)
금리 (연이자율)	3.751	환율 (원/달러)	1508.80
	(-0.006)		(+8.50)



부서 간 충돌 넘어 사회전반 파장 성과급 배분, 근본적인 고민 필요

삼성전자 성과급이 남긴 과제

하이닉스발 성과급 요구 업계 파장 협상 결과, 산업전반 선례 남을 것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사실상 하루 앞두고 노사는 막바지 담판을 벌였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21일 총파업은 피할 수 있지만 결정된다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예상된다. 협상 타결이든 파업강행이든, 정부의 파업봉쇄 등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배분 갈등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남겼다. 특정 대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노사분규가 수면 아래로 잠겨 가라앉을 뿐, 해결은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 시각이다.

19일 삼성전자 노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둘째날 협상을 진행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회의중간 기자들에게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있다”며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노사 양측의 완전한 접점 도출은 쉽지 않았다. <관련기사 3면>

이번 협상의 본질은 성과급 금액이 아니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즉 배분의 문제였다. 복수의 사업부가 공존하는 대기업에서 성과급 배분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부서 간 자존심과 공정성

인식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번 삼성전자 협상이 그 민낯을 드러냈다.

2차 사후조정에서 초기업노조 지도부는 부문 70%·사업부 30% 배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호황을 맞은 메모리와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파운드리·시스템LSI 간 성과급 격차를 크게 줄이는 구조다. 한 DS부문 직원은 “24시간 라인을 돌리며 실적을 만들어냈는데 적자 사업부와 같은 선상에 놓이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노조 지도부의 논리를 무리한 요구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초기업노조가 DS부문 과반 지위를 유지하려면 파운드리 조합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한 DS부문 직원은 “파운드리·시스템LSI가 노조 과반을 위해 필요한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메모리가 실적을 이끈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협상안에서 파운드리에 배분되는 비율은 다소 높다”고 말했다.

DX부문 문제는 더 복잡하다. DS부문이 실적 부진에 빠졌던 시절 MX사업부가 회사 실적을 이끌었지만 DS부문 직원들은 그때도 성과급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번엔 반대로 DS부문이 초호황을 맞았지만 DX부문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

다. 한 DX부문 직원은 “조합비를 내면서도 우리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노조라면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업부별로 호황과 불황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성과급 배분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오랜 감정의 축적이기도 하다.

이번 중재안 기준을 보면 DS 메모리 직원과 DX 직원의 성과급 격차는 수십 배에 달한다. 비조합원·협력사 직원들과의 간극은 더욱 크다. 한 DS부문 직원은 “파업 끝나고 복귀해도 업무 폭탄이 더 머리 아프다. 결국 우리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파업을 원하지 않는 건 노조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이번 삼성전자 협상 결과가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협상 선례가 된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발 성과급 요구는 이미 현대차·카카오·포스코로 번졌다. 노란 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 범위가 보상 체계까지 확대된 지금 그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 대기업 성과급 배분이 구성원 간 박탈감과 사회적 위화감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이번 협상이 끝나도 다음 협상은 이미 예고돼 있다.

/구남영·차현정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시 한 호텔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가계빚 2000조 육박... 은행 줄고 2금융 늘어

한은, 1분기 가계대출 잔액 1865.8조 주택관련대출·기타대출 확대 영향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993조원을 넘어서 2000조원에 비깝다 다가섰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2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비은행권과 기타금융기관 대출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4조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카드 할부 등 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 통계다.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 14조3000억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잔액은 2000조원에 근접했다.

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2조 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증가폭 11조3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상품별로 보면 주택관련대출은 8조 1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 증가폭 7조 2000억원보다 커졌다. 기타대출도 4조 8000억원 늘어 전분기 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관별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흐름이 엇갈렸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 6조원 증가에서 올해 1분기 2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12분기 만이다.

예금은행에서는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기타대출이 감소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예금은행 주택관련대출은 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고,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은 8조 2000억원 늘었다. 전분기 증가폭 4조 1000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상호금융이 5조1000억원, 새마을금고가 2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비은행권 대출 확대를 이끌었다.

기타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도 5조원 증가했다. 주택관련대출 감소폭이 줄어든 가운데 증권사 신용공여액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판매신용은 증가폭이 줄었다. 1분기 말 판매신용 잔액은 127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 규모 확대 등으로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지난해 4분기 증가폭 3조원보다는 축소됐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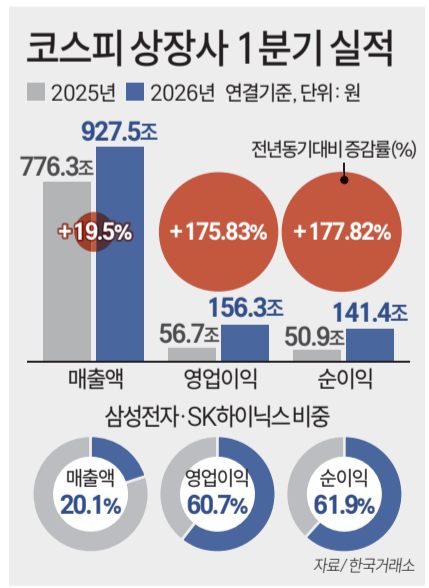
‘삼전닉스’ 효과... 상장사 영업이익 176% ↑

코스피 상장사 1분기 결산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 실적 개선 삼전·하닉 제외 영업이익 44% 늘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1~3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과 매출도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76%, 19%증 늘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영향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비반도체, 비제조업의 실적은 부진한 ‘K지형’ 성장장이 더 고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이하 연결 기준, 639사)의 올해 1분기(1~3월) 결산실적을 종합한 결과, 매출액은 927조5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9%증가했다. <관련기사 4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5.83%, 177.82% 증가한 156조3194억원, 141조 4436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16.85%), 순이익률(15.25%)도 각각 9.55%포인트, 8.69%포인트 개선됐다.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사실상 통계를 좌우했다.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 합산 매출액(연결 기준 186조 4500억원)이 전체에서 20.10%를 차지했다.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94조8400억

원)과 순이익(87조5700억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7%와 61.9%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07% 늘었다. 영업이익은 44.49%, 순이익은 55.79% 증가했다.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 전자·전자 업종이 491.75% 증가하며 전체 영업이익의 규모를 불린 것은 맞지만, 비금속(+157.73%), 의료·정밀기기(+126.27%), 일반서비스(+140.87%), 화학(+113.30%)도 각각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15개 업종 가운데 15개 업종의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5개 업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08.74%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 1.64%포인트 줄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분석대상 639사 중 순이익 기준 흑자 기업은 504사로 전년 동기 대비 23사가 늘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輿박주민 “철근 누락 뉴스 보고 알았다는 오세훈…뉴스로 안전점검 할 건가” /사진 뉴시스
- ▲‘5·18 민주화운동 진압’ 유공 육군참모총장 표창 33건 취소

- ▲“2030년 재생e 100GW 조기달성”…정부, 에너지 대전환 세부전략 발표
- ▲민주당 대선 지선 출마자 전원, 현충원 찾아 필승 결의

- ▲한동훈 “사람, 돈 모이는 도시 부산 복구” K아레나 조성
- ▲국방차관 “예비군훈련장에 지상정찰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지원”